

# 저가 재질 쓰인 '건설현장 안전망' 시민·근로자 위협

**낙하물·추락 방지용으로 사용  
강도 좋지만 비싼 PVC 대신  
저렴한 PP·PE 혼합망 증가  
"중대재해법 처벌될 가능성"**

떨어지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에 설치되는 안전망에 강도가 떨어지는 저가 재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에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KS는 ▷인장 강도(인장 하중) ▷방염성 ▷낙하 시험 등 3가지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선 KS를 맞추기 위해 내구성이 견고한 PVC(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직보호망을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가격이 저렴한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재질이 쓰이는 이른바 '혼합망'(멀티망)의

유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PVC망보다 가격이 6분의 1 수준이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PVC망은 1㎡당 1천800~2천원 사이에 거래되는 반면, PP나 PE가 사용된 혼합망은 300~350원에 거래된다.

한국수직보호망협회가 최근 한국기계기술원(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 혼합망에 관한 성능기준 심사를 의뢰한 결과, 혼합망의 인장 하중(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산업기준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KS가 제시한 수직보호망의 인장 하중 기준은 1.47kN(킬로뉴턴)인데, 혼합망의 인장 하중은 0.216kN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세로 방향은 시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장 강도가 약했고, 망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없어 이 부분도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협회 관계자는 "혼합망이 설치된 현장은 육안으로 봐도 찢어진 곳이 많았고, 낙하물뿐 아니라 근로자의 추락도 방지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혼합망을 설치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망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포인트 쌓아주는 페트병 수거 로봇**  
5일 대구 달서구 친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순환자원 회수로봇에 투명 페트병을 넣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구가 열렸을 때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페트병을 넣는 방식이다.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1개당 10포인트씩(10원) 적립되며 2천점 이상 되면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 포인트 환급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이경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저가 재질이 햇빛에 노출되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며 "6개월에 한 번씩 인장 강도를 검사하고 노후화된 망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고발이나 진정이 접수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구민수 기자 msg@maeil.com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관련  
경찰, 시청·관리업체 압수수색**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포항시청과 남구 인덕동 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포항시청 안전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재난안전상황실 등에서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태풍 복상에 대비해 세운 수해 대책, 사고 전후 현장 방문 조치 내역 등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포항시가 보유한 냉천 등 하천 정비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항시에 대해 자연재해 대비 및 조치 미흡 여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주민들에게 '이동 주차' 안내방송을 한 점과 배수시설을 적절히 관리했는지 등 책임 여부를 각각 수사할 예정이다.

신동우 기자 sdw@maeil.com  
홍준현 기자 hjh@maeil.com

**檢, 광복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김원웅 前회장 비리 의혹 수사**

김원웅(78) 전 광복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광복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 사무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광복회를 이끌던 당시 국회에서 운영하던 카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종합편성채널은 올해 초 광복회가 국회 소통관 앞에서 운영하던 카페 '헤리티지 815' 운영 수익금 4천500만원을 김 전 회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원준비생도 김 전 회장과 광복회 전 간부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카페 수익사업을 이용해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다시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김 전 회장은 광복회를 운영하며 총 8억원 규모의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은

## 신범어·벤처밸리... 'MBC네거리' 새 명칭은?

**市 오늘 지명위원회 열어 결정  
선정 맨 국가지명위원회 상정  
"통과 전이라도 이정표 등 정비"**

대구 'MBC네거리'의 새로운 명칭이 이르면 6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는 이날 대구시청 산책형사에서 지명위원회를 열고, MBC네거리의 새로운 명칭을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후보 명칭들이 추려진지 4개월만이다.

후보 명칭은 모두 6개로 ▷국동네거리 ▷법신네거리 ▷신범어네거리 ▷문화네거리 ▷동대구벤처밸리네거리 ▷벤처밸리네거리 등이다.

국동과 법신은 대구시가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해 선정한 명칭이다. 국동은 해당 네거리가 국제보상로와 동대구의 교차 지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법신은 범어·신천의 앞글자를 뺀다.

신범어 또한 신천과 범어를 뜻하고, 문화는 MBC가 46년간 있었다는 의미를 상징하자는 취지다.

이들 명칭은 수성구청이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벤처밸리가 포함된 명칭들은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통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지명위원회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이재숙 대구시의원, 시청 공무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6명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후보 1개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고,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최종 선정된다. 다만 위원들이 적절한 명칭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후보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명위에서 명칭이 최종 선정되면 '국도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되면 MBC네거리의 새로운 명칭이 확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칭이 결정되면 국가지명위원회 통과 전이라도 이정표 등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재현 기자 rehwan@maeil.com

## 김영만 前군위군수 배임 혐의도 벗을까?

**대구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  
"檢 증거 수집...재판 한 차례 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김 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확정짓는 데 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합소부(부장판사 최종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군수 측 변호인단은 "군위농협의 이익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군수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예금의 중도해지와 재예치가 반드시 관련 있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새로운 증거 수집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변론 종결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근우 기자 gnu@maeil.com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251-1234

**국내 수임결혼정보**  
초혼 (초혼) 의사·교사 등 대구경북·서울 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국내 한국결혼상담**  
초혼 전문직(의사, 법조인, 공직)  
010-3810-3003 대구 중구 태평로 273  
010-8181-8024 (옥소장 전문직 상담)

**알뜰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251-1234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이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 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인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홍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위민행정사**  
대표 행정사: 박 의 평 내용증명, 합의서, 전정서, 민원서, 가압고인, 국가보훈업무, 행정심판, 각종민원서류, 출입국업무 ※북한이탈주민 상담 우대  
수성구 수성로7길 10 (대구시 교육청 정문앞) 전화: 010-8562-4962, 633-6016

**조적(벽돌) 공사 전문**  
적벽돌, 파벽돌, 큐블릭, 와이드벽돌, 디자인 블록, 농촌 담장(스프릿 블록) 견적 문의 인제라도 가능합니다.  
가온건축 (053)-767-0404 대구 수성구 파동로 119

**묘목판매**  
◆과실수: 대추, 석류, 호두  
◆조경수: 연산홍, 사철, 수국  
◆약용수: 접목구지뽕  
◆산소조경: 황금측백, 옥향  
대구 달성동 다사읍 부곡리 694-8번지  
송정원 010-4008-4823  
010-3161-2432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별첨(봉침)용 생필품 판매 별첨(교육) 개인지도 010-7655-5879**  
네이버/카카오/블로그/유튜브로 무병장수하는 법 지하철 3호선 구암역 도보 5분

**파산 면책/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벼어리역 1804호  
010-6429-3814

**32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  
자연과 사랑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120만  
80년 원유한 가발 셀모가발 010-6250-3899 (국제기능대학 산업역사, 가발명장 중서)

**별목 임업 전문 위험수목 제거 태양광모듈 청소·예초기 (주)푸른임업·별초**  
053)424-6567, 010-8773-6567

**고화질 최신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